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11월 뉴스레터 vol. 48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다
채우고 비우고 인간의 본성과 탐욕
장례후기 고 김정원 대표를 떠나보내며
알쓸신장 상조회사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준다구요?
채비가 만난 사람들 도서관에 담은 인생 2막
숫자로 보는 채비 시각장애로 장례식 참석 부담된다 70.9%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다



변화는 항상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온다. 가랑비에 옷 젖듯 찾아온다.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다. 2년여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이다. 무엇이 바뀌고 있을까.

우선 조문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이 부산이든 광주든 기어이 직접 조문해야 예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못 갈 사정이면 아내나 자식이라도 대신 보내야 직성이 풀렸다. 조문 올 사람이 안 오면 두고두고 욕먹었다. 장례식장이 먼 지방이라면 왕복 차비에 조의금에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상주 혹은 유족의 계좌로 조의금을 입금하고 문자나 전화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이전에는 상주가 계좌를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계좌에 입금만 하고 조문을 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염치없고 부끄러운 짓이라 여겨지던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역시 '예의'라는 것도 시대와 의식의 산물일 따름이다.

장례의 규모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1인 가구도 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예전에는 형제가 많아 장례 치르기가 그나마 수월했다. 십시일반 했으니까. 이젠 여럿이 할 일을 혼자 치러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거나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고령화로 일흔 상주가 아흔 고인을 모시는 일도 흔해졌다. 육체가 노쇠해 엎드려 절하기조차 버겁고, 생업에서 떠난 지도 오래니 조문 올 이 또한 많지 않다. 외국으로 나간 형제도 많으니 때맞추기도 힘들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불화와 반목이라도 있다면 장례에 힘을 모으기는 더욱 어렵다.

전통을 지키기보다 합리적 판단을 선호하는 세대의 등장도 변화의 한 축을 이룬다. 이들은 유교식 제사도 배격하고 수의 대신 평상복을 택한다. 아예 병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중심의 3일장 대신 우리

조합의 '채비장례'를 선호한다. 이미 10여 차례 채비장례를 치렀고, 상담문의도 부쩍 많아졌다. 이런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장례를 꼭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따라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현재의 장례식은 조선시대 유교의 전통 상례가 일제강점기 때 제정한 '의례준칙'(1934년)과 해방 이후 가정의례준칙(1969년)을 거치면서 정해진 것이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서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만들어 놓은 의전 시스템이 더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사실 이전부터 조금씩 진행돼 온 것이다. 우리 조합의 경험에서 보듯 일회용품을 쓰지 않거나 음식 대신 다과를 제공하고, 병원 장례식장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등 기존 장례를 바꾸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장례는 고인이 원했고,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치르면 된다. 추모는 고인을 기억하는 일이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정희 조합원의 가족 작은장례식 @공간채비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탐욕

질비오 게젤에게 배우자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지금에 이른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작용에 따른 것입니다. 자연적 본성이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적자생존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기심의 발휘, 경쟁 과정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발휘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인류의 진보란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쌓은 명예나 부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치를 누리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비난 받아야 할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은 인간의 본성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지요. 모든 생명체나 재화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소멸하듯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맞는 개인의 부나 명예라는 것도 결국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수준까지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대장동사태처럼 인류 공동 자산인 땅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투기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재벌들의 불법 상속처럼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속마저 불법으로 해야 할 만큼 부를 쌓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멀리 벗어난 탐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경제 시스템과 그걸 용인하는 사회의식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이야 아예 탐욕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기에 욕망이라 해봐야 자연적 본성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는 지도층 인사입니다.

탐욕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작업환경, 이윤을 위해 환경을 파괴해도 큰 벌을 내리지 않는 법 적용, 기업가 중심의 법체계, 이를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시정하기보다는 선정성 경쟁에 매달리는 언론들…. 희망을 갖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면서 동시에 그 결과물이 자연적 본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 장치를 만들어왔습니다. 공동체 사회와 분업과 협동! 자연적 본성의 자율 규제지요. 한편으로는 사적 소유 제도와 가족제도를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과 종족을 넘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정착, 공통규범을 만들어 자율 규제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의 탐욕은 커지고 빈부격차와 불평등, 불공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체의 결함은 물론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던 사회주의 실험도 공산당과 국가 관료주의라는 새로운 계급제도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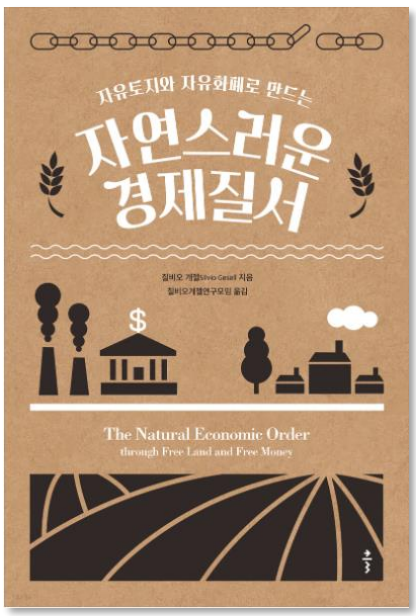
이러한 실패는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엉뚱한 데서 찾은 결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1910년대 활동한 독일 출신 사업가 겸 개혁가인 질비오 게젤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에서 토지국유화와 감가상각 화폐를 결합한 개혁으로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자연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완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되, 경제와 사회를 망가뜨리는 불로소득(토지 임대료, 토지투기소득, 이자소득 등)은 없애는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이자부국채(利子附國債)를 발행해서 시가로 매입하여 공공 경매를 통해 누구든 토지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매년 5%씩 가치가 줄어드는 20년 시한 자유 화폐를 발행하여 기존 화폐를 대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화폐가 상품을 지배하는 것은 썩지 않고 가치를 축장하는 화폐의 속성 때문이고 거기서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유화폐가 도입되면 소비가 확대되고, 상품유통이 빨라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고, 이자도 사라지므로 노동 소득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소득만으로도 노후생활이 보장될 정도라고 합니다.

탐욕에 의한 사회문제를 개인 차원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제도 개혁으로 결합되어야 인류는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워라밸의 삶, 그리고 편안한 노후와 자연으로 돌아가는 죽음.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 질비오 게젤의 사상이 확산되고 실현되는 그날을 함께 꿈꿔보길 기대합니다.

유종오 | 공인회계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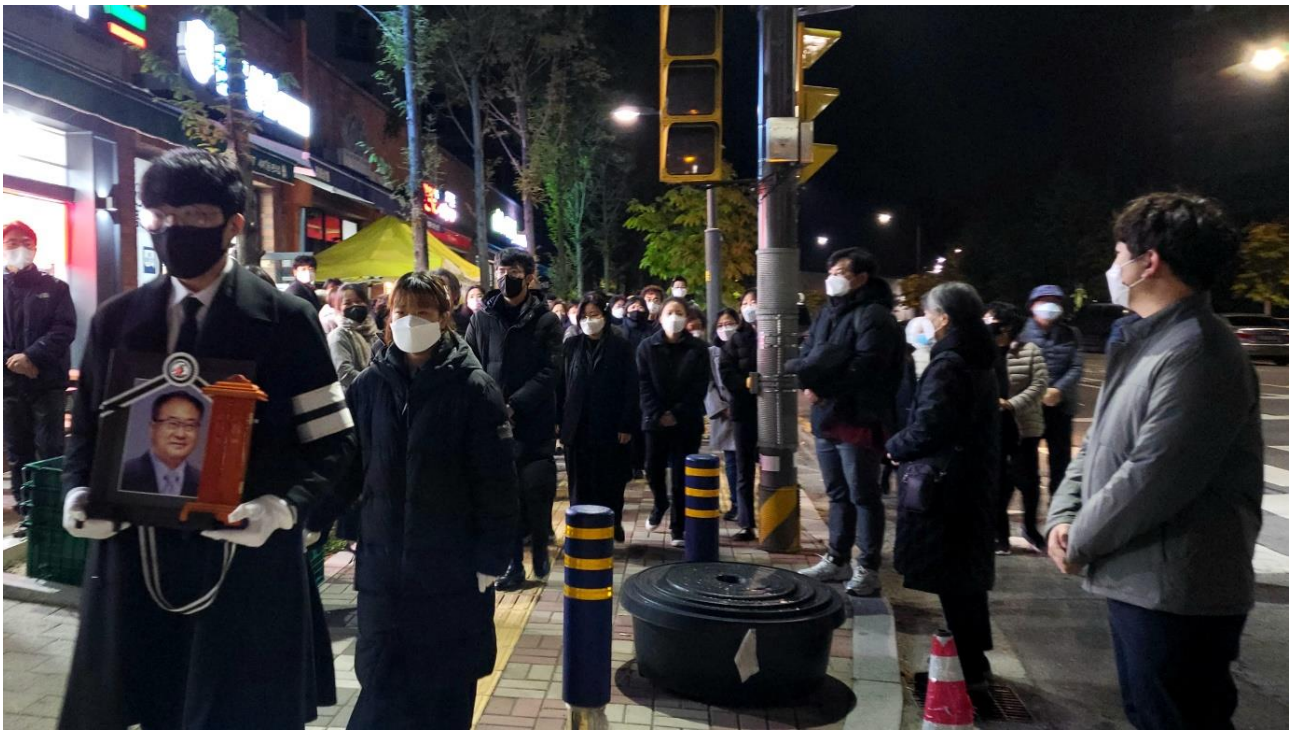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질비오 게젤 저 | 출판사 클

유종오 한겨레협동조합 감사와 김상현 한겨레협동조합 연합회 이사장 등이 번역한 경제개혁가 질비오 게젤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소득과 이자 같은 불로소득 때문에 생기는 빈부격차와 기회불평등, 사회갈등의 원인분석과 해법을 제시한 탁월한 경제고전입니다.

5명의 역자가 2년여 간의 번역과 토론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며, 번역인세는 저자의 뜻을 기려 전액 미혼한부모보호시설에 기부됩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4085391?OzSrank=1

고 김정원 대표를 떠나보내며



김정원 대표 보시오

커다란 덩치와 짧게 깎은 머리, 늘 웃음 가득한 얼굴, 알사탕 하나 물고 말하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로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협동조합 아파트에 살면서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장례협동조합 도움을 받아 또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동지.

같이 일을 하면 늘 밥을 같이 먹어야 하고, 밥을 먹으면 술 한잔해야 하는 것을 인생의 진리라 믿은 그대. 청년과 함께 일하며, 청년에게 우리 일을 물려주고 손 털고 나오자 했던 영원한 활동가 김정원..

사업비 부족하고 손 모자라는 일에 궂은 소리 들어가며 두 딸내미와 아내까지 투입해서 수습하고 나며 속 모르는 이들은 가족끼리 다한다고 손가락질 했어도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이웃에게 이것저것 퍼주던 지독한 리얼리스트.

그대는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이자 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위스테이별내 사회적협동조합 CB위원장으로 활발하게 일했소. 그야말로 경기도와 남양주와 위스테이별내의 듬직한 기둥이자 우직한 일꾼이었소.

그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바로 달려와 준 곳이 한겨레두레 협동조합이었소. 조합원가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망자가 되고 말았구려.

그 많은 짐 훌훌 벗고 떠난 그대, 그곳은 어떻소?

오늘 이웃에게 과메기 한 꾸러미를 선물 받았소. 이 맛난 것을 보니 작년 요맘때쯤 함께 모여 과메기를 먹던 때가 기억 나오. 맛난 것이 있으면 있는 데로, 부족하면 중국집 요리라도 보태서 사람을 모으고 이야기하고 왁자지껄 놀던 때가 엊그제 같소.

그대가 쓰러져 끝내 못 일어났다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았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큰 숨 한 번 돌리는 중이라오. 그대의 뜻을 이어가자며 토요일마다 '으싸으쌰' 힘을 보태 주말장터를 안착시키느라 노력 중이라오. 지난주에도 '완판' 했다오. 그대가 없어도 멀쩡하게 돌아가니 약간은 섭섭도 하겠소.

그대가 그렇게 애쓰고 애쓰던 협동상회도 협동조합 인가증을 받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소.

경기도사회주택연대, 경기쿱도 후배들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그토록 원하던 ICA(국제협동조합연맹) 회의에 우리 협동조합 주택을 알리려고 동분서주하던 그 뜻도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소.

그대의 영원한 반려자 혜원 샘, 이쁜 딸 지후와 연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고단한 몸을 쉬시게.

다음 기일이 돌아오면 그대가 좋아하는 '파싹' 삭은 홍어 한 접시 내오고, 과일향 듬뿍 담은 배갈 한 잔 보태 인사를 드리겠소. 군내 나는 세상사 우리의 진한 향기로 싹 덮어버리겠소.

꽃다발 놓인 그대의 온기 가득한 사무실 책상을 지나노라면 아직도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아 가슴이 미어지오. 언제라도 "어이" 하며 문 열고 나타날 것 같은 옆집 아저씨 김정원. 그곳에서는 협동조합 만든다고, 사회적경제 한다고 설치고 다니지 말고 제발 푹 쉬소서. 느긋하게 한숨 돌리며 우리를 지켜보소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잊지 않을 테니…. ❋

이상우 | 조합원(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상조회사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준다구요?

상조 결합상품의 비밀



상조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전제품까지 주는 결합상품 광고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에서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업이 장례지도사라 상조회사의 상품 종류나 내용은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연스레 채널을 멈추고 한참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명히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장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없고 고급 가전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도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공짜로 준다는 홍보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알쓸신장'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현재 결합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한 상조회사의 홍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마치 공짜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종류도 매우 고급스럽고 다양하다.

대표적인 상조서비스 결합상품을 살펴보자.

상품명	스페셜라이프4더블		
월 납입금	1~48회차	49,800원	상조부금9,400원+가전제품40,400원
	49~200회차		전액 상조부금

이 사양의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의 할부 내용은 매월 4만 9천800원씩 200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총 납입금액은 996만 원이다. 딱 봐도 비싼 가격이다.

계산해보니 996만원 중 가전제품 가격은 1백9십3만 9천200원이고 나머지 8백2만 800원은 상조서비스 부금이다. 상품 이름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조서비스 2구좌라는 뜻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약 400만 원 상당의(우리 조합에서 장례를 치르면 300만 원도 들지 않는다) 상조상품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고, 1백94만원 가량의 가전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가전제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할부금을 내고 산다는 것인데, 그럼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하긴 한 것일까.



검색해보니 상조상품과 결합상품을 사는 것보다 20만 원 가량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 금액에 시중가보다 더 비싼 가전제품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조회사들이 공짜로 가전제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가 아닐까.

어떻게 이런 '사기 영업'을 버젓이 할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사기는 아니다.
상품에 가입해서 16년 8개월 동안 매월 4만 9천800원씩 내면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납입한 9백9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은 이미 받았으니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면 공짜로 가전제품을 받은 것이니 사기가 아닌 것이 맞다.

과연 그 기간 동안 중간에 상조상품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이 회사는 16년 8개월이지만 어떤 회사는 25년(300회) 동안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조합원들 중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보시라.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결합상품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오해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상조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깝다. 가입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모든 가구가 거의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신규 회원 유치가 힘들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러한 미끼상품들을 내놓았고, 매우 잘 팔렸다. 이 결합상품을 처음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공한 마케팅이라 평가하고 있다.

상조산업의 본질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고 떠난 이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저러한 결합상품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서 어떻게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유족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할지를 업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도서관에 담은 인생 2막

이순임 조합원 (김근태도서관 관장)



얼마 전 우리 조합에서 '채비플랜학교'를 열었다.

간소하지만 애도 깊은 채비장례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총 5강을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는 수강생 중 한 명을 '고인(?)' 삼아 모의 추모식을 거행하는 것이었다. 용감하게 고인을 자청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이순임 조합원이다.

이 조합원은 영정사진, 유품을 챙겨왔고 수강생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고인의 생을 담은 약전, 추모사, 추모편지를 준비했다. 자신의 영정 앞에서 그는 의연했고, 추모사와 추모편지를 들으면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행사 후 "더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50대 말의 이 조합원은 1996년 인천에서의 노동운동을 하다 정리하고 서울 도봉산 자락으로 이사했다. 그는 남다른 친화력을 소유자라 얼마 안가 동네의 '왕언니'로 불렸다.

그는 딸 다섯의 엄마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시아주버님과 조카를 자기 손으로 돌보고 키웠다. 이 억척스러운 여인의 등장으로 동네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는 굴곡진 전반기를 접고 2002년 도봉시민회 교육 간사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며 교육 품앗이와 독서모임을 조직했다. 1년에 13개의 독서모임과 9개의 교육 품앗이를 만들어 내면서 탁월한 주민조직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가 앉은 자리에는 주민모임이 생겨난다는 말을 과언이 아니다.

2004년에는 도봉동의 컨테이너에서 15명의 주부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저소득 한 부모 책 배달사업, 유네스코 평화캠프 등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그는 2010년 작은 도서관 운동의 활동을 인정받아 공공도서관 관장이 되었다.

북 스타트, 조례 제정, 도보 10분 거리에 도서관 건립 등의 활동과 함께 주민 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공간, '도서관의 주인은 주민' 등 도서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는 현재 김근태기념도서관장을 맡아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관 일은 12월 4일이다. 고 김근태 선생은 고문과 투옥으로 점철된 혹독한 80년대를 보낸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다.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경찰관 5명에게 22일 동안 고문당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도봉구 최초 민주주의 라키비움 문화시설인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고 김근태 선생의 민주주의를 위한 삶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려 한다. 도서관, 기록관, 전시, 공연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고 김근태의 민주주의 삶과 그의 평화, 인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만날 수 있다. 또 우리의 일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필요한 시민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김근태도서관과 우리 조합은 '채비강좌'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당차고 씩씩한 이순임 조합원.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치고 있는 그를 응원한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김근태도서관 조감도

도봉구 최초 민주주의 라키비움 '김근태기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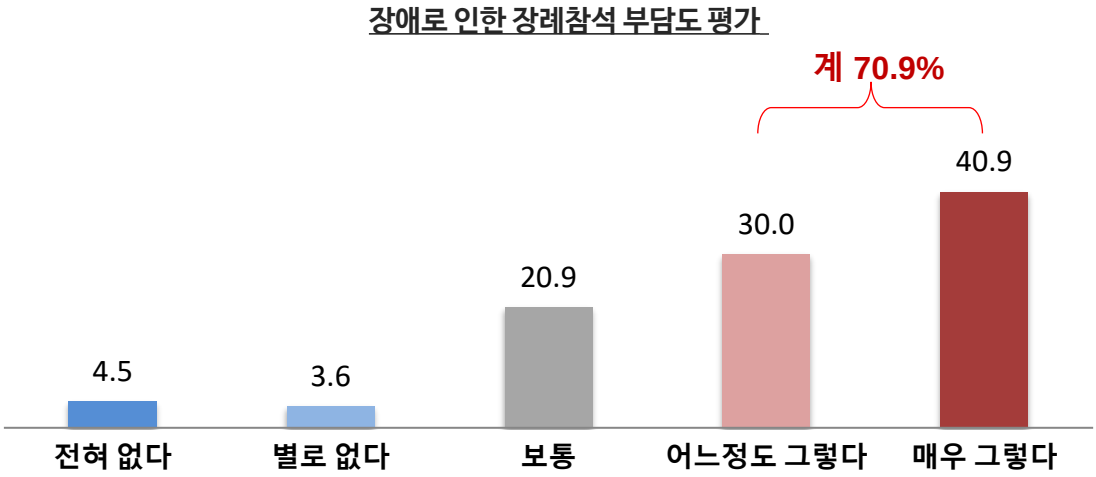
김근태기념도서관은 민주주의・인권 특화도서관으로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의 민주적 삶을 도서관, 전시관, 기록관 곳곳에 담은 시민에게 열린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에 찾아오는 시민이면 누구나 도서, 기록, 전시, 공연, 체험, 교육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고 김근태의 민주주의 삶을 토대로 한 평화, 인권, 경제, 정치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공익기관이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보루로, 정보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 평생학습과 지식정보의 생산기지로,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인 시민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 이순임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화우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 장례문화인식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3회에 걸쳐 게재할 계획입니다.
장례문화의 기초적인 편의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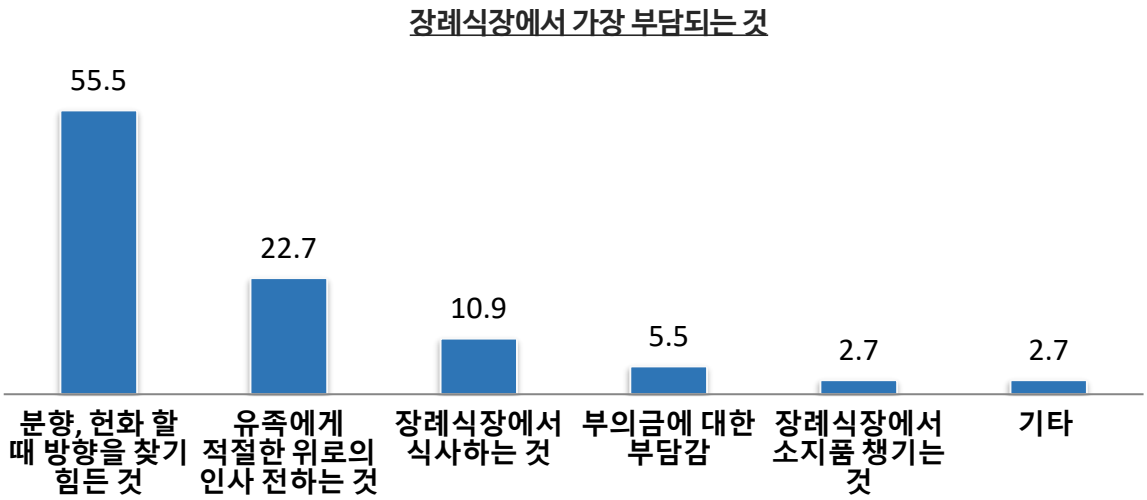
1 장애로 인한 장례참석 부담도

시각장애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된다 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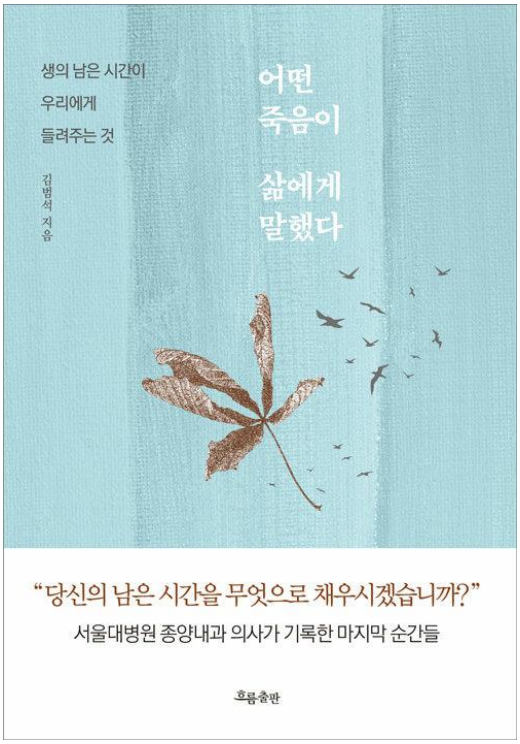
2 장례식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

분향, 헌화할 때 방향을 찾기 힘든 것 55.5%



*자료출처: 장애인의 장례문화 인식조사. 2021. 시각장애인 110명 대상

생의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김범석 | 흐름출판

이 책은 서울대 암 병원 18년 차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가 만난 암 환자와 그 곁의 사람들, 의사로서의 솔직한 속내를 담은 에세이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남은 시간을 채운다. 누군가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담담하게 삶을 정리하고, 누군가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죽음을 미루기 위해 고집을 부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암을 이겨내고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도 한다.

저자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려가는 마지막을 지켜보며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곱씹어 보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렇게 얻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자가 틈틈이 남겨온 기록이다.

책의 1, 2부는 저자가 만나온 환자들의 이야기로 환자와 가족들이 예정된 죽음과 남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3, 4부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고민과 생각들을 엿볼 수 있다.

책 속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지금 여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에 태도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출판사 제공)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컨텐츠를 소개합니다

[채비 마음치유 프로그램]

식물과 함께 하는 치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반려식물 심기'



우리는 언젠가 모두와 헤어져야 합니다. 슬픔의 길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는 늘 살아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헤어지기 싫어 만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나로 존재하는 순간 나는 이미 누군가와 만났으니까요. 슬픔의 힘은 나를 멈추게도 하지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용기를 줍니다.

식물과 함께 하는 채비 치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반려식물 심기'는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의 이별을 힘들어하는 유족들이 꽃과 식물을 활용한 원예프로그램을 통해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합니다.

■ 교육 소개

- 일정: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7시-8시 40분
- 대상: 조합원, 조합원 지인 15명 (선착순마감)
- 수강료: 2만원 (재료비)
- 교육 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신청: https://forms.gle/wsggKFvkGkEoLkx88 02)722-9517, 1800-9517

■ 강의 내용

- 식물과 사람과의 공통점인 탄생, 성장, 결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 고인께 못다한 말과 자신의 바램을 써서 유리병에 넣어 식물과 함께 심는다
- 반려식물을 심어 키우면서 마음의 위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한다.

■ 강사

이현주 ㈜화유플라워앤원예치료센터 대표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강원조합] 9차 정기총회







지난 10월 27일 강원조합의 9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강원조합의 열심을 막을 수는 없어보입니다.
강원조합 조합원들의 따뜻한 소식,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옷으로 이별을 준비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에서 만드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광목수의 '날개옷**





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칠고 예쁘지도 않고 평상시에 입지도 않는 삼베수의가 아닌 가장 친근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면, 광목으로 만든 수의는 어떨까요?

광목은 목화에서 실을 추출하여 엷게 가공한 천으로 무형광 무색소로 생분해성이 높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소재로 자연과 가장 가깝습니다.

송악동네 수의 '날개옷 ' 은 특별합니다.

원삼깃과 도포깃에 한땀한땀 손으로 직접 자수를 놓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옷으로 짓습니다.

또한 맞춤제작 방식으로 광목을 곱게 물들여 단 한 벌의 옷을 위한 원단을 따로 염색합니다.

선조들의 수의 전통을 이어 온전한 25가지의 구성품으로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송악동네 날개옷은 이렇게 만듭니다


물들이기


패턴그리기


재단하기


수놓기


재봉하기


손바느질


다림질


포장





한겨레두레 조합원 특가

품 목	소비자가	조합원가	적립금 사용	현금지불
하얀 광목수의	980,000	850,000	500,000	350,000
물든 광목수의	1,150,000	1,000,000		500,000

*조합 적립금을 최대 50만 원 까지 사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수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입 절차

구입문의
1588-9517
1800-9517
→ **구입확정**
불입금 사용 여부 확인
→ **발주**
사이즈 확정
→ **제작**
→ **배송**



자연으로 돌아가는 **광목수의 날개옷**은
송악동네사람들이 함께 짓습니다.

미아공방 김미아

소중한 지인에게 하나둘키트를 선물해주세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올해 1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합원 부흥운동 '하나둘하나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장례문화가 정착하려면 더 많은 조합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상업적 장례를 상호부조의 장례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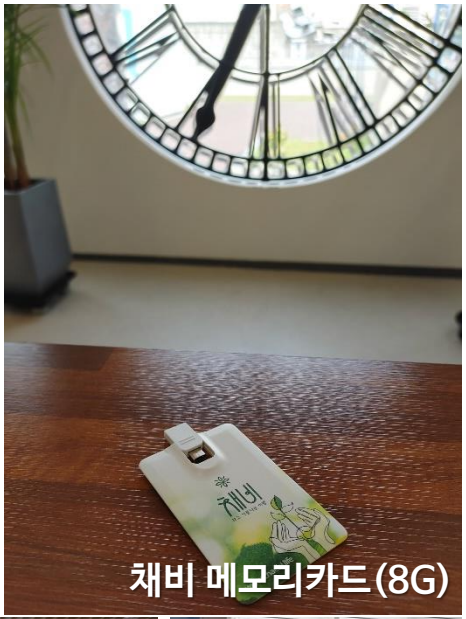
하나둘키트는 한겨레두레에 대한 소개와 장례에 대한 준비를 담았습니다.

조합원이시라면, 우리 조합을 소개할 만한 지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비조합원이시라면, 저희 조합을 알기 위해 신청해주세요



하나둘 키트 구성품


채비 메모리카드(8G)









하나둘키트 언박싱 소개영상 보러가기

하나둘키트 신청 CLICK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2021. 10월

김영남 조합원 모친상
장병익 조합원 빙부상
김택환 조합원 빙모상
채민자 조합원 시부상
전정옥 조합원 모친상
박지영 조합원 부친상
홍상국 조합원 부친상
나영문 조합원 부친상
이상연 조합원 부친상
이희규 조합원 모친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김선구 조합원 시부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최광신 조합원 모친상

2021. 9월

원유갑 조합원 모친상
이용규 조합원 모친상
이정환 조합원 모친상
박정연 조합원 지인상
심미경 조합원 배우자상
이병훈 조합원 빙부상
박은덕 조합원 사돈상
진신희 조합원 시부상
염갑수 조합원 모친상
김정렬 조합원 빙부상
박치영 조합원 부친상
차성호 조합원 부친상
최윤성 조합원 부친상

2021. 8월

성한용 조합원 모친상
김일오 조합원 빙모상
안동섭 조합원 모친상
이미경 조합원 모친상
김홍석 조합원 부친상
정재권 조합원 사돈상
추병호 조합원 부친상

2021.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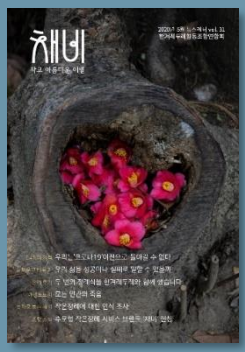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이영미 조합원 시부상
이혜순 조합원 시부상
최정서 조합원 모친상
정경진 조합원 모친상
정승균 조합원 빙부상
최정우 조합원 누나상
오헨리 조합원 배우자상
박영철 조합원 모친상
한승동 조합원 모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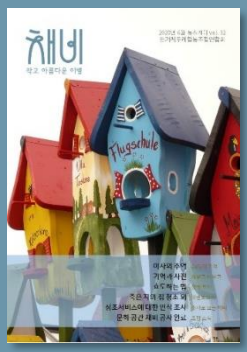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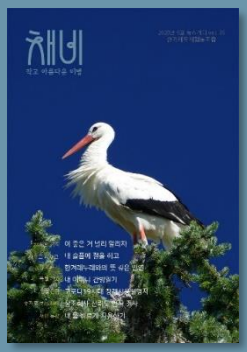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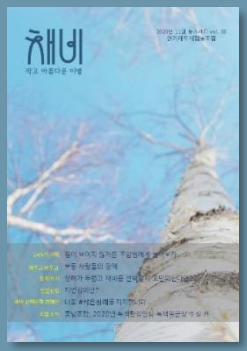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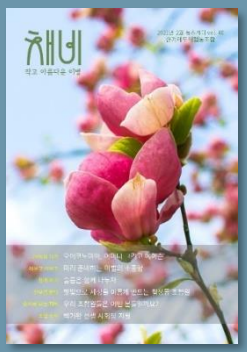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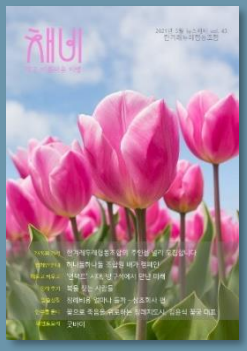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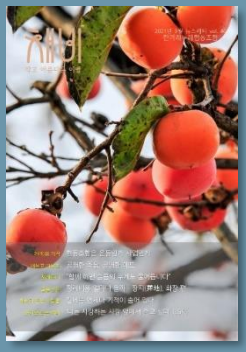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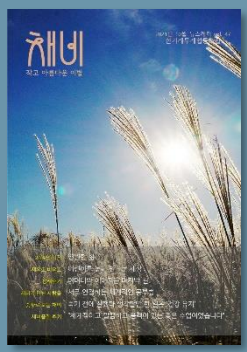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